

익산시 코로나 차단 고삐

4번째 확진자 발생 후 전 직원 비상태세 고강도 방역체계 신속한 초기대응·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초강수

익산시가 지역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희숙 부시장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추진상황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 부시장은 현재까지 지난 26일 4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총 5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접촉자는 90명이며 장례식장 접촉자 55명은 지난 1일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가 모두 해제됐다. 추가로 2일 일부 식당 접촉자 15명이 자가격리 해제될 예정이며 이로써 4번 확진자로 인해 자가격리가 진행 중인 인원은 25명이다.

또한 3번째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는 총 54명으로 오는 3일자로 51명이 자가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에서 코로나19 3번째,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 직원이 모든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전 직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지역 내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5,179곳을 대상으로 매일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며 콜라텍 5곳과 방문 판매홍보관 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내리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 방역수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과 위로를 보내주길 당부했다.

지역 4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 이후 힘든 치료과정에서도 이동 동선 확보에 적극 협조했으며 CCTV 확인 결과 모든 이동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대전방문 당시 만났던 지인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바로 보건소를 찾았고 대전시 문의 결과 접촉자가 아니라는 답변에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이는 대전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당시 이동 경로가 확인돼 4번째 확진자에 대한 검체 검사와 자가격리가 즉각 이뤄졌더라면 접촉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를 계기로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관련 증상과 정황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당사자의 검사 요청을 수용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해 비상태세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유희숙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견디고 있는 확진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다 강력한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유희숙 익산 부시장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4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총 5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유재구 의원

부의장에 박철원 의원 선출



유재구 의원

박철원 의원

익산시의회는 2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를 열고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익산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유재구 의원이 부의장에는 박철원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의장으로 당선된 유재구 의원은 "그동안 전반기의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시던 조규대 의장님과 운영속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통, 화합, 형통의三通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철원 부의장 당선자는 "부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의 소통 집행부와

의 협치에 힘써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은 2022년 6월말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제8대 후반기 익산시의회는 15일 개회하는 제228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청년 보금자리 지원

익산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안정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 소득 조건에 해당되고 주택미련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년 2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상반기 계약심사 약 11억 3000만원 절감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사를 통해 약 11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정과 공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익산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을 심사했으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보조금 3000만원 이상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는 재정사업 358건, 613억원에 대상으로 △ 공사 약 5억8000만원 △ 용역 약 5000만원 △ 물품구매 약 2000만원 등 총 7억5000여만원을 절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25건 92억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3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전환 지원

소규모 시설 장비·교육 등

익산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나 종교 모임등을 자제토록 하고 3일부터 온라인 예배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시설 교육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이 없는 소규모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예배 지

원을 시행하며 종교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교육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며 7월 8일, 15일, 22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1회 특강형태로 운영되고, 각 회당 10명(목회자, 보조진행자 1팀 구성)을 선착순 모집 실시한다.

또한 교육 외에도 온라인 예배전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배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희망하는 종교시설 관계자들에게 촬영 공간과 장비도 지원한다.

센터내 조명과 촬영 장비가 설치된 TV 스튜디오 공간을 무료로 이용하

주일 예배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튜디오 공간대여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이용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와 온라인 예배 전환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온라인 예배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교육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등 자세한 문은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859-5719)로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드림스타트 '사랑이음 봉사단' 밑반찬 나눔

사랑의 마음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밑반찬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일 여성교육장 조리실에서 15명의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어머니들로 구성된 '사랑의 밑반찬 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드림스타트 직원들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15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민점의 다양한 밑반찬(자장소스, 소세지 아재볶음, 배추겉절이,

감자조림, 멸치볶음)을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직접 요리하여 드림스타트 대상 취약계층(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 40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사랑이음 봉사단은 매년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조모임을 통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올해에도 15명의 어머니가 동참해 지난 6월 10일에 시작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